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15일 화요일 음 5월 6일 (13돌)

기상정보

호리고 비



대체로 호리고 비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1°C, 낮 최고기온은 24-26°C로 전망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오후, and precipitation percentages for various locations like Seogwipo and Jeju.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Sunrise) and 달뜨기 (Moonrise) times for Jeju and Seogwipo.

식중독지수 주의, 자외선지수 매우 높음

주간예보

Table with 3 columns: Day, Weather, and Temperature for the next few days.

월드뉴스

'세계 최대 가족' 가장 인도 남성 별세

아내 38명·자녀 89명·손주 33명 일부다처제 허용 종교집단 수장



'세계 최대 가족'을 거느린 시온-아 차나.

아내 38명, 자녀 89명, 손주 33명 등을 뒤 '세계 최대 가족'의 가장으로 불린 인도 남성 시온-아 차나가 13일 76세로 세상을 떠났다.

죽고 지난 11일 의식 불명 상태가 됐다고 더힌두는 보도했다.

인도 동북부 미조람주의 주총리인 조람탕가 주총리는 "아내 38명과 자녀 89명을 둔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족을 이끈 것으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시온-아는 '차나 종파'라고 불리는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였다. 이 종파는 그의 아버지가 1942년 창시했으며 400여 가족으로 구성된 이 집단은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는 이어 시온-아 가족 덕분에 그 마을은 중요한 관광 명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17세 때 3살 연상인 여성과 첫 결혼을 했고 이후 가족의 수가 급속히 늘어났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시온-아는 미조람의 주도 아이졸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아온 시온-아는 최근 상태가 나빠

연합수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한라칼럼



송창우 농부

여름 햇볕이 따갑다. 일상처럼 다가온 코로나19도 두 번째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가로수로 심어진 왕벚나무는 진녹색 이파리로 하늘을 가리며 그 크기만큼이나 넓은 그늘을 만들었다.

족제비 때문에 돌아본 자연

다. 벚꽃이 피었던 봄날이었는데 아니 그 이전 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느 날 새벽 밭에서 족제비를 본적이 있다. 비바람을 막고 잠시 쉬는 공간으로 허술하게 지은 천막에서 빠져나와 돌담 사이로 재빠르게 사라졌다.

마리를 잡고 나니 족제비가 다니지 않았다. 족제비가 사라지자 닭들이 알을 낳고 자유롭게(울타리에 갇힌 닭이 얼마나 자유로울까 마는) 돌아다닐 줄 알았으나 계란을 노린 뱀들이 나타났다. 구멍이었다고 한다. 닭들도 저항하려고 했을 것이지만 계란을 삼키고 있는 뱀을 어쩔 수 없었을 것이었으리라.

와 뱀과 쥐, 벚꽃과 벌과 열매, 태양과 바람과 비, 인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과 만질 수 없는 것까지 모두가 연결돼 있는 것이다. 현재 이 엄중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역시 인간은 자연을 우리와 분리된 정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열린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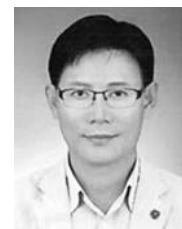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최선의 방법



박경미 공항공청대외사팀

시대가 변화할수록 범죄도 그에 따라 진화해왔다. 그 중 가장 빠르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를 거듭해 온 범죄가 바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일 것이다.

도민이 꿈꾸는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문경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지난 9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기공식 자리에서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3대 목표가 발표됐다. 제주도는 2019년 구좌읍 동북리에 환경자원순환센터가 가동되면서 폐기물 처리에 속도가 트였고, 2023년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까지 완공된다면 전체적인 기반시설이 갖춰지게 된다.

100년만에 플라스틱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고민거리가 돼버렸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을 2020년대 대비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 내세웠다. 쉽지 않은 일을 이뤘지만, 1회용을 다회용으로 전환하고, 석유계 물질로 이뤄진 플라스틱을 생분해성 물질로 대체해 나간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

누구나 한 번쯤은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매년 전국에서 3만 건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제주도의 경우 2018년 505건(피해액 55억원)·2019년 565건(피해액 95억원)·2020년 474건(피해액 85억원), 2021년 4월까지 218건(피해액 45억 5000만원)이다.

이런 시점에서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를 제안하게 된 것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로 도달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야 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란 감량과 자원순환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감량에는 분명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두 번째 목표로 재활용 자원순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재활용도 옵션이 아닌 현대화된 집하시설을 통해 고품질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회수하고 에너지와 또 다른 자원으로 순환시킬 수 있다면 쓰레기는 우리의 손을 떠나지는 순간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폐기물 처리에서 종착역은 매립이 될 수밖에 없지만 쓰레기 매립은 육지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자원으로써 가치가 남아있는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것은 분명히 차단돼야 한다. 2030년 직매립을 완전히 금지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누가 하더라도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 계단씩 올라서야 할 일이다.

Advertisement for 'Citizens' Office' (시민장의회) with contact info and a map of the loc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car purchase services, including 'Black Box' (블랙박스) and 'Car Buy/Trade-in' (차량구매) services.